로컬플러스

익산폴리텍대학 베이비부머세대 전기내선공사 야간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지난 20일 대학 본관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전기내선공사 야간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본 과정은 베이비부머세대인 만45세 이상~65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기내선공사 관련 내용으로 6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대학 내 희망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베이비부머세대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맞춤식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과정은 수업료 및 교재, 식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국비 지원되며, 소득이 없는 교육생에게는 매월 2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용문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시야 확보 위한 엘로카펫 설치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9일 군산 용문초등학교 아버지회와 학생 30여명은 학교 앞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에 엘로카펫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엘로카펫을 설치한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아이들의 횡단보도 이용이 많은 곳으로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 페인트를 활용한 엘로카펫은 은박지를 두드려 시공한 엘로카펫에 비해 시공비가 1/50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또 내구성이 높고 언제든 보수가 가능한 횡단보도 등에 사용되는 노란색 페인트를 시험적으로 사용해 학생들의 안전 통학구역 확보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대된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활짝 웃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실시

군산시는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군산시 일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산관광 200만 원년의 해' 돌입을 위해 짜임새 있는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군산이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만큼이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또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의 숨은 관광콘텐츠를 활용해 항구적으로 보전할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곳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의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역사·문화 등 후대에게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 카보타지 적용 철회 요청

해수부 방문…90여개 기업체 2천여 근로자 생계위협 등 지역경제 악영향 예상

수출용 국내 차의 연안운송과 관련하여 광양항을 제외한 항만에 대해서 카보타지를 적용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산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적용'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군산시 관계자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해수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동차 연안운송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허용됐던 외국 선박은 연안운송을 제도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재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의 화물 운송에 대한 권리를 자국 국적의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이며,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카보타지 적용에서 광양항만 빠지게 되면서, 군산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은 지난 2015년에 30만 1000대(3462천 톤)의 환적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이 수치는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8.7%, 수출 물동량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120억원에 달한다.

이 물동량이 군산항에서 빠져 나간다면 90여개의 항만유관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2천여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및 항만유관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장항 항로준설 중단구간 재개 추진

올 10월 착공목표…2018년까지 10.5m 수심확보 계획

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단 민자유치 개발 추진으로 중단됐던 군장항 항로준설 중단구간이 올해 10월 착공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장항 항로준설의 농어촌공사 구간이 2015년 6월 중단돼 2단계 항로준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감사원에서는 관계기관 감사 실시 후, '군산해수청이 2018년까지 항로 내측 준설을 실시해도 농어촌공사 구간인 항로 입구부의 준설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효과 저감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항로 내측 완료시점에 맞춰 항로 입구부를 우선 준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출항 선박(2만 톤급)에 대해 상시 통항하도록 수심을 확보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는 지난 14일 항로준설에 대한 협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는 군산해수청의 사업 완료시점인 2018년까지 준설구간의 수심을 10.5m로 확보해 선박이 상시 통항하도록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항로입구부의 계획수심 13.5m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준설 착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간대행 공모와 직접준설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민간대행개발 공모에서 사업자 선정 시 민간사업자가 준설하고 응모자 부재 시 직접 준설하기로 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직접준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오는 8월 개최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장원 군산시 항만물류과장은 "군장항 항로의 수심확보를 위해 중단구간의 준설재개를 위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고 있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로 군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염동일)는 지난 20일 대구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여 탄소산업분야와 섬유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익산(융복합첨단소재)-대구(바이오융합소재) 미니클러스터 전체 회원기업 대상으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단공, 익산-대구 미니클러스터 초광역 교류 워크숍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염동일)는 지난 20일 대구지사(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여 탄소산업분야와 섬유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익산(융복합첨단소재)-대구(바이오융합소재) 미니클러스터 전체 회원기업 대상으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교류 워크숍이 개최됐다.

지난달 5월18일에는 대구에서 익산으로 방문하여 탄소산업 및 섬유산업 업종별 중심의 미니클러스터 회장단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미니클러스터간 협업을 통해 공유가치 방안을 탐색하여 발전 및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회장단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속 추진으로 이번에는 전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간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기술간 융합 기술 창출 기회 및 융복합 상호연계 협력을 위한 통로 제공을 통하여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익산에서 대구로 방문하여 대구지사 세미나실에서 참석자 소개 및 초광역 네트워크 교류회, 탄소·섬유 기술교류회로 ㈜한국이엔티, 조양모방㈜ 회원기업의 현황 및 주요 생산품과 우수사례 발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방문소개 및 투어, 양쪽 미니클러스터간 협업의 시간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28일 군산서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의 사기진작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제7회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개최된다.

전라북도 수산업경영인대회는 도·전국대회 격년 개최로 2014년 고창군, 2015년 부안군에 이어 올해는 오는 28일 군산월명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의 후원을 받아 (사)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사)군산시연합회에서 주관한다.

특히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해양수산기관 홍보전시 부스'는 도내에 있는 국립갯벌연구소, 도립수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관리공단, 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참여해 해양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바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기자재 전시홍보 부스'에서는 첨단 선박기관 및 장비, 양식장비 등을 소개하고, '수산물특산품 홍보전시 부스'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2차 가공 및 6차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수산업경영인들의 마인드 함양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응급환자 생명 구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신속한 후송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위험에 처한 정모(74.여)씨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주민감동 치안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18:22경 "인도에 할머니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위 윤경웅, 경사 정명곤이 즉시 출동, 신속히 119에 연락할 머니를 원대응급실로 후송조치 하였으나, 뇌출혈이 의심되 응급수술이 필요해 보호자가 필요한데 할머니의 신원을 몰라 가족과 연락이 안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응급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윤경웅 경위와 정명곤 경사는 할머니의 가족을 찾기 위해 십지지문을 채취해 과학수사반에 의뢰 신속히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주거지에 진출, 약봉투에 적혀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아들과 연락,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조치함으로서 귀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아들 박모씨는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항상 걱정되었는데 이런 큰일이 생겨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소중한 한 생명을 구조한 윤경웅 경위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기에 어르신을 꼭 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경찰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상반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군산시는 상반기 '2016년 수도권 귀농학교'를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적응의 기회와 희망을 부여하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 전달과 귀농 성공사례 등 다양한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이번 귀농학교에서 군산시는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으로 1억원 한도 내 융자지원과 농기계 및 비가림 하우스 우선 선정, 농지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귀농학교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등 군산 근대역사지구 시간여행과 군산의 자랑인 새만금 등을 방문해 농촌 현장견학을 실시해 군산시의 주요관광지를 홍보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군산시 수도권 귀농학교를 통해 귀농 성공사례 농가를 견학하고 농촌생활을 체험해 귀농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었다"며 "귀농?귀촌으로 정착하는 기초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16년 하반기 수도권 귀농학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나서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액과 더불어 감정평가비용 등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공매 의뢰 전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급여 및 카드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태료와 세외수입에 대한 저하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납부의지를 가지고 성실 분납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체납액 174억여원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원에 이른다.

/군산=문정곤기자

청암산·군산저수지 중심 생태관광지조성

군산시가 청암산과 군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지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그동안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 6개월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현재 2016년 추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회현면 세장리에 습지데크길과 연계하여 1천평 규모의 꼬마숲 놀이마당과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군산저수지 입구 358m의 제방길에 보행자 안전시설과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함에 있어 인공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현재의 생태자원을 유지 복원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